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정태언 문학박사(오스크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알훈섬,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편의점 향한 은행의 구애 “자동화기기 함께 쓰자”



편의점 GS25에 설치된 ATM(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인출과 이체를 할 경우,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와 동일한 이용수수료가 적용된다.

모바일뱅킹 발달로 이용객 점점 줄어 GS25·CU와 제휴...이용수수료 등 할인 은행 비용절감·편의점 고객유인 '원인'



시중은행과 편의점 간 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유지비용 탓에 국내 은행들의 자동화기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판매관리비 경감과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편의점을 전초기지 삼고 있다. 은행에게는 유지비용 절감 효과를, 편의점에는 고객 유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3개 은행이 보유한 자동화기기 대수는 4만 6731개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말 5만

5513개 대비 15.81% 감소한 수준. 반면 편의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수는 2014년 3만 6300개에서 지난해 4만600개로 증가 추세다.

자동화기기 업무가 최근 모바일뱅킹 등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유지비 절감을 위해 수량을 줄이고 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하지만 노인 등 금융거래 취약계층을 생각하면 아예 없애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시산간 지역까지 탄탄한 자동화기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편의점을 통해 자동화기기 업무를 대체하겠다는 게 은행 측 전략이다.

시중은행들은 편의점과 제휴를 통해 편의점 자동화기기의 사용 범주를 늘리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GS25와 제휴를 맺고 GS25 자동화기기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자사 은행 자동화기기 만큼 낮추기로 했다. 현금 인출과 이체를 할 경우 자사 은행 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와 동일한 이용수수료가 적용된다. 또

한국씨티은행 고객은 세븐일레븐 자동화기기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 CU와 16개 시중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도 눈에 띈다. 상품을 구매한 뒤 자신이 인출하고 싶은 금액을 포함해 함께 결제하면 그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인출은 1계좌 당 1일 10만 원 이내, 수수료는 800원으로 공용 자동화기기 수수료와 비교해 5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편의점 역시 이득이 많다. 제품을 많이 판매해 매출을 올리는 게 최종 목적인데,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내방객이 많아질 경우 자연스럽게 점포당 매출도 높아지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편의점으로 확대되면서 고객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생활편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점포에서도 방문고객이 증가해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3일

코스피지수	2480.55	▲	+19.55
코스닥지수	772.22	▲	+11.82
日 낮케이 지수	2만2758.07	▼	-108.10
중 상하이 종합	3303.04	▲	+22.22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08		0
환율 (원·달러)	1091.80	▲	+0.30
국내금값 (원/그램)	4만3633.90	▼	-58.56

오늘의 얼굴

손태승 은행장 “능력 중심 투명 인사”



손태승(사진) 우리은행장 내정자가 13일 내부 특별방송을 통해 인사원칙을 공개했다. 능력 중심의 투명한 승진인사, 실적 중심의 직위를 우대하는 공정한 인사이동, 역동적인 조직을 위한 젊은 인력 전진배치, 신상필벌이 명확한 인사원칙 준수가 주요 골자다. 본부장급 승진인사에서는 후보군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영업그룹 임원들로 구성된 ‘승진후보자 평가협의회’ 및 외부기관과 연계한 ‘다면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점장급 이하 승진은 영업실적과 근무평가를 반영한 인사고과 기준으로 선발하되, 본인의 인사서류를 공개함으로써 승진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본부 부서나 해외영업점 직원은 공모제도를 통해 100% 선발하고, 선발되지 않은 직위에 대해서는 사유와 함께 향후 로드맵을 제공하는 피드백을 진행한다. 손 내정자는 “앞으로 직접 인사절차 전반을 챙겨보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는 은행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 뉴 레이’ 디자인 변경 “신차 같네~”

연비 높이고 안전·편의성 대폭 강화 6에어백시스템에 전복감지센서 추가



‘더 뉴 레이’는 개선된 1.0 카파 엔진 장착해 연비를 높였고, 내·외장 드레스업 패키지, 반력동물 용품 등 다양한 튜닝 선택사항을 신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 레이가 실내외 디자인을 변경하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새롭게 출시됐다. 기아자동차는 13일 복합 브랜드 체형 공간 ‘BEAT360’에서 ‘더 뉴 레이’의 사진영상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더 뉴 레이의 바디와 동일한 컬러의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에 경쾌한 느낌의 와이드 허니콤(벌집모양) 패턴을 넣어 디자인이 더욱 산뜻해졌다. 실내내 스포티하고 입체감 있는 3스포크 스티어링 휠, 심플하고 와이드한 이미지의 센터페시아 메탈 베젤을 적용해 고급감을 더했고 귀여운 이미지의 기어노브를 통해 개성을 표현했다.

더 뉴 레이의 카파 1.0 MPI 엔진을 장착해 연비를 13km/L(14인치 타이어 자동변속기 기준, 기존 대비 약 2.4% 향상)로 높여 경차의 기본인 경제성을 더욱 끌어 올렸다. 또한 급제동 경고 시스템(ESS)을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하고 기존의 6에어백시스템에 롤오버 센서(전복

감지)를 추가해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반력동물 용품 ‘튜닝 팻’ 3종도 더 뉴 레이에 최초로 적용했다. ‘튜닝 팻’은 카시트(이동식 케이스), 카펜스(1,2열 중간 격벽), 2열용방오 시트 커버 등을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더 뉴 레이의 가솔린 모델 가격은 디젤스 1315만~1570만원이며, 밴(VAN) 모델은 1210만~1265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올 뉴 크루즈, 신차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

쉐보레 올 뉴 크루즈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7 신차안전도 평가(KNCP)에서 종합등급 1등급을 획득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정면, 부분정면, 측면, 기동측면 테스트와 뒷좌석 어린이 안전성 및 후방 충돌 좌석안전성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진 충돌안전성 평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승객의 안전을 가능케 하는 지표인 동시에 신차안전도 평가의 핵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차량 사고에 취약한 여성 운전자와 어린이에 대한 충돌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한국지엠 차량안전개발본부 김동석 전무는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쉐보레의 제품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최고의 안전성을 제공해 탁월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더페이스샵, ‘그린 패키징 공모전’ 우수상



LG생활건강 자회사 더페이스샵의 쿠션 파운데이션 열 쉐링 포장(사진)이 친환경 경성을 인정받아 ‘제7회 그린 패키징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첫 개시 전까지 쿠션 내용물이 뚜껑에 닿지 않도록 필름을 내용기에 열로 부착해 내용물을 보호하는 친환경 포장 방식이다. 점착제 대신 안전성이 확보된 필름 재질을 사용해 내용물 보호력, 개봉 편의성, 친환경 경성을 극대화했다. 지난 8월 출시된 안티다크닝 쿠션 파운데이션에 첫 적용했으며,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친환경 활동을 전개한다는 게 회사 측 계획이다.

K쇼핑 제4기 고객평가단 모집 KTH의 T커머스 K쇼핑이 26일까지 제4기 고객평가단을 모집한다. 평소 K쇼핑 TV방송, 온라인몰, 모바일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활동에 관심 있는 여성고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K쇼핑 온라인 홈페이지(www.kshop.c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고객평가단으로 선발되면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K쇼핑 TV방송 모니터링 및 평가, K쇼핑 제품 체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BC카드, 스키장 리프트권 최대 60% 할인 BC카드가 내년 2월28일까지 비발디파크,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 등 전국 11개 스키장에서 리프트권·렌탈권 등 구매 시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겨울엔BC’ 이벤트를 연다.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야간 리프트권 구매 고객에게 티켓 1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 비발디파크,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 오크밸리, 엘리시안에서는 금·토요일 야간 리프트권 구매 시 동일한 혜택(1+1)을 제공한다.

동원F&B, 양반김 신제품 출시



동원F&B가 신제품 ‘양반 참깨가송이김’과 ‘양반 참숯가송이김’을 출시했다. ‘양반 참깨가송이김’은 참깨를 볶아 김 위에 뿌려 구운 제품이다. 원초의 향긋함과 참깨의 고소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 겹집을 벗긴 참깨를 사용해 더욱 고소하며 식감이 부드럽다. ‘양반 참숯가송이김’은 전통방식 그대로 참숯 가마에서 구워내, 그윽한 숯불향을 느낄 수 있는 김이다. 가마에서 구운 뒤, 원적외선 오븐에 한 번 더 구워 식감이 더욱 바삭하다. 정제소금보다 염도가 약 10% 낮은 황토소금을 사용해 김이 짜지 않고 부

드럽다. ‘양반 참깨가송이김’과 ‘양반 참숯가송이김’은 각각 16봉 묶음을 5980원이다.

롯데마트, ‘포항시 사랑 페스타’ 진행

롯데마트가 20일까지 전 점포에서 ‘포항시 사랑 페스타’를 연다.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함으로 포항 지역 대표 특산물인 과메기를 비롯해 포항시에서 추천한 다양한 농수산물들 지역 우수 파트너사와의 직거래를 통해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72시간 숙성시켜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구룡포과메기(300g/1팩)를 1만2800원에, 포항 인근에서 어획된 2kg 내외의 생물 왕대구(1마리)를 2만3000원, 생물 삼치(1마리)를 4800원에 판매한다. 또 지진 피해가 컸던 포항홍해농협의 홍미진미쌀(10kg)을 100t가량 매입해 2만3800원에, 서포항농협의 포항 사과(4~8일)를 120t가량 매입해 5900원에 판다.

가상통화 범죄 단속·처벌 강화...미성년자 거래금지

정부 관계부처 긴급회의의...대책 발표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래가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사기 목적의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

한다.

또한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의 가상통화 투자 손실을 막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외국인 등의 비거주자는 관련 계좌 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가 추진된다. 은행은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 거래 보고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비즈 TALK TALK

● “우리나라 대다수 세입자는 2년에 한번씩 경총 뛰어버린 전월세 때문에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전월세 난민이 됐다.”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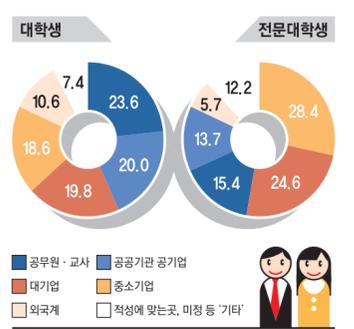
●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할 분담 해소해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13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만나)

데이터 경제

“공무원·교사 최고” 대학생 취업 선호도 여전

공무원과 교사 등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았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3일 발표한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희망 기업으로 4년제 대학생은 공무원·교사(2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공기관·공기업(20.0%), 대기업(19.8%) 등의 순이었다. 전문대생은 중소기업(28.4%)을 가장 희망했고, 대기업(24.6%), 공무원·교사(15.4%)는 답변이 뒤따랐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4년제 대학생은 1학년 14.7%, 2학년 17.1%, 3학년 18.7%, 4학년 22.6%로 증가세를 보였다.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전문대생은 1학년 26.1%, 2학년 23.8%, 3학년 23.1%로 점차 줄어들었다.

● 취업 희망 기업 (전학년 평균, 단위:%)



편집 | 신하늬 기자